

포천군 근대 農家의 건축적 變化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nge of Traditional Farmhouse in Pocheon Province

곽 동 업*
Kwak, Dong-yeob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rchitectural change of the modern Korean farm-houses. Regional boundary of this study is confined to Pocheon-Gun, and the object is mainly forty-two farm-houses as long as sixty years since it was built. An analysis is made on the change of spaces, facilities and finished materials of farm-hou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n-Chae have changed for the more comfortable living conditions through the spatial changes as like the fittest facilities with spatial extension and integration. And in Arae-Chae, unlike An-Chae, the old and unused space often have transformed to the other function and the its facilities remained still unimproved.

Keywords : farm-houses, architectural change, spatial extension, transform.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 나라가 19세기 이후 본격적인 근대화 사회로 이행되면서 새로운 주택양식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구조법 및 기술 그리고 재료 등이 전통적인 결구방식과 다른 이러한 주택들은 이른바 洋式 및 日式주거로 불리어지면서, 대부분 외국인이나 일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도심지 주거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은 절충적인 새로운 타입의 주거형태도 더불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열세에 놓인 서민주거 및 농가에서는 여전히 건축재료와 인력의 자체조달을 통해 전통적인 방식이 고수되는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근대화의 물결은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면서 이들 농가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농작업 생산방식의 변화, 대가족 제도의 붕괴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변화 그리고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 등은 농가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명맥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던 전통적 결구방

식의 기존 농가까지도 일부 혹은 전면적인 개조·개축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응해야만 하였다.

전면적인 개축의 주택과는 달리 일부분만을 개조하여 생활에 적응하였던 이들 일부 농가들은 가족의 주거상과 사회적 활동방식의 변화에 따른 건축적 대응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주거사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근대 농가들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방치된 채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전통적 목조 가구식 결구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던 농가들을 대상으로 1960년대 이후 근대화 및 산업화를 통해 겪게 되는 건축적 변화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부차적으로 이를 통해 근세대 농가들의 住居史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료로 정리해 두고자 하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택의 건축적인 변화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최소한 건립시기가 60년 이상이 된 농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였다.¹⁾

이들 중 전면적인 개조나 개축 과정을 거쳐 이전의

* 정희원,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경기도 문화재단의 경기도민가조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광복이전에 건립된 농가들은 본격적인 근대화의 과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건축적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모습을 상실한 농가들은 연구의 맥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현재까지 전통적인 방식의 목조 가구식 구조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42개 농가들을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채택하였다.²⁾

한편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포천군으로만 한정하였는데, 이는 연구 대상 지역을 단일 郡으로 한정함으로써 농가들의 지역적 변화 추세를 공통인자로 추출해 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대상 농가는 포천군 가옥대장에서 건립시기를 확인한 후 직접 답사를 통해 선별하였으며, 2차에 걸친 실측 및 사진촬영과 면담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채집된 자료는 대개 공간상의 변화양상과 병행하여 설비의 개조, 마감재료의 변화 추세를 함께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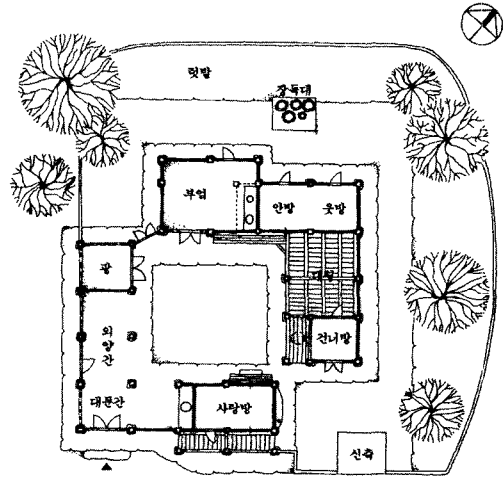


그림 1. 포천군 농가 예 (가산 3리 이경순씨택)

II. 포천군 및 농가 현황

1. 포천군의 개황

포천군에 한민족이 정착한 것은 선사유적지로 보아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나,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최초로 고구려의 영토로서 馬忽郡이라 칭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후 경덕왕 때에는 堅城郡으로 개명하였고,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抱州로 개칭한 것을 고려 성종 14년(995년)에 十道制를 채택하여 都團練使를 두고 비로소 포천이라 하였다.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이르러서는 八道制와 더불어 포천현으로 개칭하고 현감을 두었다가, 고종 32년(1895년)에는 영평현을 병합하면서 郡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포천군은 2읍 11면 89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경도로 통하는 大路에 위치하여 옛부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는 강원도의 철원 및 화천과 경기도의 연천 의정부 동두천 양주 등과 접해 있다.

지형은 산지가 발달하여 평지가 적은 관계로 평야의 발달은 미약하다. 연평균 기온은 11.8°C로 우리나라의 중간적 기후를 가지고 있다.

2. 포천군 농가의 일반적 특징

조사된 포천군 농가들에서 주목되는 점은 안채의 평면형식과 안채공간의 배열에 있어서 뚜렷한 공통점이 보인다는 것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2개 농가 중 안채와 아랫채가 하나의 채로 연결되는 'ㄷ' 자형과 'ㄱ' 자형 배치는 6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안채가 별도로 건립된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건립된 안

채의 평면 형식은 모두 'ㄱ' 자형을 띄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특히 안채와 아랫채 모두 현존하는 21채의 농가의 경우, 무려 14채가 아랫채를 'ㄷ' 자형으로 구성하여 안마당에 폐쇄성이 강조되고 있다.³⁾

또한 안채의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즉 안채의 'ㄱ' 자형 배열에 있어 옷방(상방)과 안방 그리고 부엌이 차례대로 일렬로 배열된 다음 안대청과 전너방이 이와 직교하게 배치된다는 점이다. 안채의 이러한 실 배열은 조사된 모든 가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아랫채의 공간구성은 보다 자유스럽다. 대부분의 아랫채는 사랑방과 대문간 외양간 그리고 고방(헛간) 등이 배열되는데 이들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성은 발견할 수가 없다.

상부가구구조는 안채의 대청과 안방 부분은 3량 혹은 5량가가 대부분이지만 부엌은 4량으로 구성되는 예가 많으며 아랫채는 전체가 4량으로 결구되어 안채보다는 격이 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안채의 부엌은 방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게 2칸통으로 구성된 예가 많았으며, 특이한 것은 안마당에서 직접 개폐 할 수 있는 부엌 찬장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다 수 발견되고 있다. 또한 뒷마당과의 연결을 위한 뒷문과 아랫채 전면쪽으로 농작업을 위한 바

3) 안채만 남아있는 농가들 대다수가 원래 아랫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현장조사시에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안마당을 안채와 아랫채로 강하게 圍繞하는 배치형식은 포천군 농가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지만, 이상해의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7권 9호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경기도 민가의 지역성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2) 대상농가들은 표 1을 참조

표 1. 조사 농가의 현황

순번	가옥명	소재지	건립연대	건물 평면 유형
1	김경화씨댁	포천읍 어룡 1리	6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2	이병두씨댁	포천읍 동교 1리	100년전 추정	ㄱ 자형 안채
3	백운석씨댁	포천읍 동교 3리	1918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4	백씨가문집	포천읍 동교 3리	1897	ㄱ 자형 안채
5	윤여찬씨댁	소흘읍 무림 1리	6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6	고건태씨댁	소흘읍 무림 2리	100년 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7	고동준씨댁	소흘읍 무림 2리	1937	튼 □자 안채 아랫채
8	권용호씨댁	소흘읍 고모 1리	15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9	차용순씨댁	소흘읍 초가팔 2리	1929	ㄱ 자형 안채
10	이경윤씨댁	소흘읍 초가팔 2리	200년 전으로 추정	□자형 안채와 아랫채
11	이석주씨댁	소흘읍 무봉 1리	15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12	홍성봉씨댁	신북면 심곡 1리	1936	ㄱ 자형 안채, — 자형 아랫채
13	김제현씨댁	신북면 금동 2리	80년전으로 추정	튼 □ 자형 안채, 아랫채,
14	김영채씨댁	신북면 금동 2리	10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 자형 아랫채
15	김진성씨댁	신북면 덕둔 1리	약 6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 자형 아랫채
16	조병국씨댁	창수면 추동 1리	약 12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17	조남기씨댁	창수면 추동 1리	약 7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18	영종수씨댁	영중면 거사 1리	1937	ㄱ 자형 안채
19	전수길씨댁	영중면 거사 2리	10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자형 아랫채
20	이용하씨댁	군내면 구읍 2리	1917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21	김영대씨댁	군내면 구읍 2리	1928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22	차한송씨댁	군내면 좌의 2리	1897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23	차재갑씨댁	군내면 좌의 2리	1925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24	김용호씨댁	군내면 좌의 2리	약 8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자형 아랫채
25	연제양씨댁	군내면 직두 1리	1921	튼 □자형 안채, 아랫채
26	이상길씨댁	군내면 직두 3리	약 90년전으로 추정	ㄷ 자형 안채, 아랫채
27	이한구씨댁	군내면 상성북 2리	1938	ㄱ 자형 안채
28	양재하씨댁	군내면 하성북 3리	1924	ㄷ 자형 안채, 아랫채
29	이진명씨댁	내촌면 내 4리	1915	ㄱ 자형 안채, —자형 아랫채
30	최재민씨댁	가산면 감암 2리	1916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31	조희연씨댁	가산면 방축 2리	1852	ㄱ 자형 안채
32	공가	가산면 우금 1리	1908	ㄱ 자형 안채
33	조동목씨댁	가산면 우금 2리	약 8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자형 아랫채
34	이경순씨댁	가산면 가산 3리	1914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35	이종철씨댁	가산면 정교 1리	1907	ㄱ 자형 안채
36	유군순씨댁	가산면 금현 2리	1937	ㄱ 자형 안채
37	김영택씨댁	일동면 길명 3리	1927	ㄱ 자형 안채
38	박영배씨댁	화현면 화현 2리	1942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39	남기산씨댁	화현면 화현 3리	약 10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40	차상욱씨댁	화현면 화현 4리	1926	ㄱ 자형 안채, ㄴ 자형 아랫채
41	이달용씨댁	화현면 화현 6리	약 120년전으로 추정	ㄱ 자형 안채
42	양희동씨댁	화현면 지현 3리	1938	ㄱ 자형 안채

깔마당이 발달해 있는 것도 이 지역 농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Ⅲ. 농가의 변화 고찰

1. 공간의 변화

연구대상으로 채택된 농가들에서 보이는 공간 변화를 용도변경⁴⁾, 공간통합⁵⁾, 공간분할⁶⁾, 확장⁷⁾, 신축⁸⁾ 등 5가지의 변수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채별 공간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안채는 공간확장(46)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간의 통합(31) 그리고 용도변경(25) 신축(19)순으로 변화추세를 보이는 반면, 아랫채는 용도를 변경(25)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눈에 띄게 많고, 신축(10)의 사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공간의 통합, 분할 확장 등은 미미하다.

따라서 안채의 경우에는 공간의 확장과 통합을 통해서 특정공간의 기능을 보다 강화시키고 거주성을 개선시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달리 아랫채에서는 용도변경과 신축이 많아 안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공간 변화 양상 (단위 : 곳)

	용도 변경	공간 통합	공간 분할	확장	신축	계
안채	안방	1	30	0	13	44
	부엌	8	0	5	19	32
	대청	12	2	0	2	16
	건너방	2	2	0	10	14
	옷방(상방)	1	25	1	2	29
	뒷마루	1	3	0	0	4
계	25	31*	6	46	19	
아랫채	사랑방	2	2	1	1	4
	고방(헛간)	2	3	0	2	9
	외양간	14	2	0	0	17
	대문간	3	1	0	0	4
	기타	4	0	0	0	4
계	25	4*	1	3	10	

*공간통합의 계는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발생수의 반으로 집계하였음.

- 4) 규모의 변화 없이 다른 용도로 轉用
- 5) 둘 이상의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
- 6) 하나의 공간이 둘 이상의 공간으로 분할
- 7) 다른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외부로 확장
- 8) 새로운 공간의 신축 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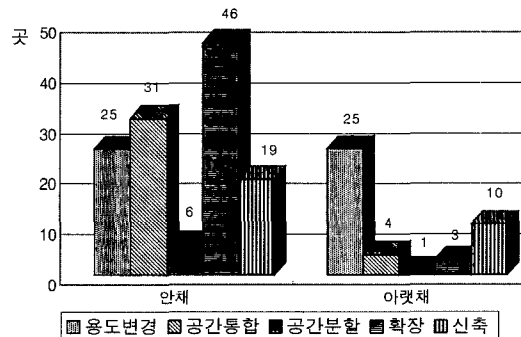


그림 2. 채별 공간 변화 양상

이는 아랫채 공간의 실별 사용형태가 바뀌었거나 퇴화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특정공간의 기능적 변화 및 퇴화가 공간적인 대응으로서 용도변경 및 신축으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⁹⁾

1) 안채의 공간별 변화 양상

안채의 경우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공간의 변화는 안방과 상방(옷방)의 통합이다.

상방은 안방의 배면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미혼의 자녀가 거주하거나 가재도구 및 살림의 보관 장소로 주로 이용되어 오던 공간이다. 현지 조사 면담을 통해서 상방이 존재하였던 경우가 대다수의 가옥에서 확인되었으나, 현재 상방이 독립되어 유존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상방이 안방으로 통합되면서 안방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농현상 및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獨居노인 혹은 노부부 중심으로 가족구성원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면서 타 공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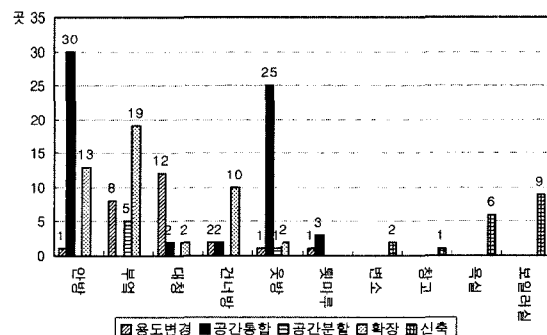


그림 3. 안채 공간별 변화 양상

9) 표 1의 대상농가들 중 안채만 남아 있는 농가들은 대다수가 아랫채가 소실된 사례로서 아랫채의 기능적 퇴화를 짐작케 하고 있다.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빈도 및 거주성이 높은 안방이 보다 확대된 결과로 보인다.

안채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공간적인 변화는 안방과 건너방 그리고 부엌이 확장되는 경우이다.

부엌공간은 대개 배면쪽 혹은 측면쪽으로 시멘트 블록을 사용하여 확장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소수 가옥에서는 전면쪽으로 처마 아래 공간을 활용하여 시멘트 블록조로 반칸 부엌을 덧붙여 내는 곳도 보인다. 이러한 부엌에서의 공간적 확장은 재래식 취사 방식을 입식으로 개조하여 싱크대 등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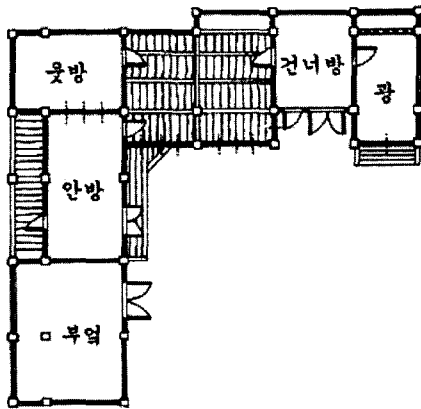


그림 4. 권용호씨댁 안채 개체전

이와 함께 안방과 건너방은 각 각 배면과 전면쪽으로 반칸만 확장되는 경우로 특히 안방 배면과 건너방 전면의 텃마루를 방으로 끌어들여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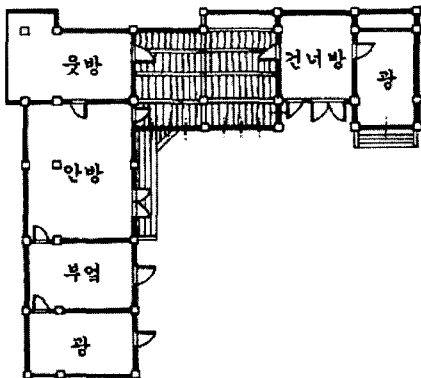


그림 5. 권용호씨댁 안채 개체후 (안방확장 예)

용도의 변경은 대개 대청과 부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그리 많은 예를 찾아 볼 수

는 없지만 안대청의 전면에 창호를 설치하고 입식부엌을 꾸미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부엌공간은 용도를 바꾸어 욕실 혹은 보일러실, 창고 등으로 개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엌의 기능이 유지되는 농가에서는 이들 보일러실과 욕실을 부엌의 바깥측 외벽에 잇대어 신축하거나(그림 2에서 욕실과 보일러실의 신축은 모두 이 경우에 속한다) 혹은 부엌공간을 나누어 개조(그림 2에서 부엌의 공간분할 5사례가 이에 속한다)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청의 용도변경 사례 중 보다 적극적인 경우는 안방이나 건너방 중 한 곳을 대청과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이들을 모두 현대식 입식 부엌과 거실공간으로 개체하는 경우로 2곳의 농가에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부엌과 대청의 용도변경과 보일러실 욕실 등의 신축은 현대식 주거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아랫채의 공간별 변화 양상

안채에 비해 아랫채의 경우는 공간의 용도 변경(25)과 함께 신축(10)의 사례가 가장 두드러진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랫채에서 가장 많은 용도변경의 사례를 보이고 있는 곳은 외양간(14)이며, 다음으로 고방(헛간)의 순이다. 외양간의 용도변경은 근대화 사회로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농작업이 기계화로 바뀔수록 인해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급격히 줄어들어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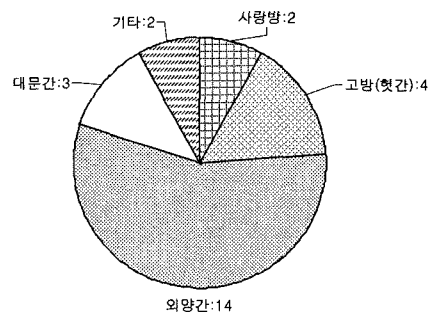


그림 6. 아랫채의 용도변경 추이 (단위 : 곳)

이경윤씨 가옥의 경우 아랫채 외양간과 고방 그리고 1칸 사랑방을 함께 헐어내고 여기에 시멘트 블록을 사용하여 2칸 온돌방과 사랑부엌을 들인 경우이다. 당시는 자녀가 결혼하여 새로이 방을 늘려야 할 형편이었다고 하나 다시 자녀들이 분가함으로써 현재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경윤씨 가옥은 완전한 □자형 가옥으로 건물 뼈대를 변경치 않은 상태에서 아랫채 대부분을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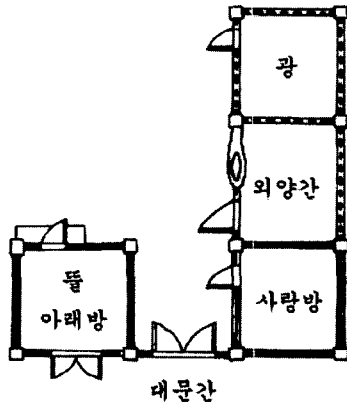


그림 7. 이경윤씨댁 아래채 개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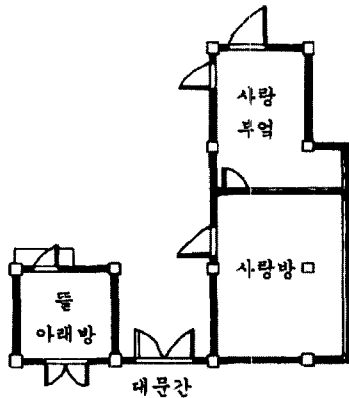


그림 8. 이경윤씨댁 아래채 개체후 (용도변경 예)

선하고 방과 부엌으로 용도를 변경한 특별한 경우이고, 대다수의 別棟형 아래채에서는 외양간을 헛간으로 단순 용도변경 하거나 혹은 벽을 다시 치고 고방이나 창고방으로 개축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이 외에 別棟형 아래채에 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¹⁰⁾엔 기존의 사랑방을 확장하거나 덧대어 신축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박영배씨 가옥은 대문간 옆의 사랑방 뒤쪽으로 방을 새로이 확장해 내어 달고 측면쪽으로는 부엌까지 달아 낸 가옥이다. 외양간은 현재 닭장과 장작더미를 쌓아두는 나뭇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자녀들의 결혼과 함께 공간의 용도변경과 신축 확장이 이루어 졌으며, 이들이 다시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10) 최근 포천 일대의 가구공장 등 공장 근로자들에게 임대하기 위해 아래채에 방을 다시 들이는 경우가 많다

2. 취사 및 난방설비의 변화

조사 가옥들은 건립 당시엔 모두 안채 부엌과 건너방 그리고 아래채의 사랑방에 재래식 장작 아궁이를 설치하여 난방을 해결하였으며, 특히 부엌에 설치된 아궁이에는 커다란 가마솥을 걸치고 취사를 함께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쌀값의 수급에 어려움이 많고 비위생적인 취사방식의 개선 및 편의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현대식 난방과 부엌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조사 결과 포천군내 42채 농가들 중에는 무려 35채의 가옥에서 이미 싱크대와 가스렌지를 설치하여 현대식 주방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취사설비의 개선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나머지 재래식을 고수하고 있는 7채의 사례들도 대부분 獨居노인 혹은 생활능력을 상실한 생활보호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농가에서는 취사방식 개선의 변화가 뚜렷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현대식 취사설비를 부엌공간에 두지 않고 타 공간에 두는 경우는 주로 안채청이 선택되고 있으나, 몇몇의 농가에서는 시멘트 블록을 사용하여 부엌문 앞쪽 처마 아래에 작은 공간을 덧붙여 달아내고 현대식 부엌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다.

표 3. 취사 및 난방설비 현황 (단위:곳)

		안채	아랫채
취사설비	재래식	7	
	현대식	35	
난방방식	기름보일러	27	5
	연탄보일러	9	4
	장작아궁이	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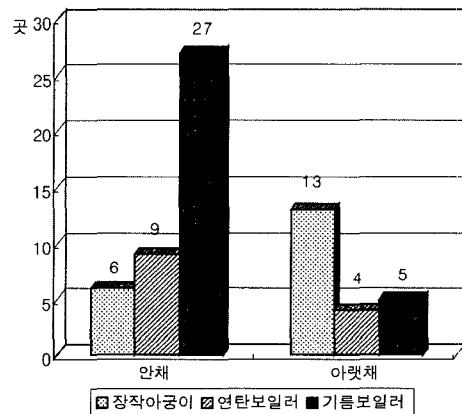


그림 9. 채별 난방설비 현황

난방방식의 변화 양상은 안채와 아랫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농가에서 안채의 난방 방식은 기름(27) 혹은 연탄보일러(9)로 개조되어 개체율이 86%에 달하는 반면, 아랫채는 사랑방이 잔존하는 22곳 중 9곳에서만 보일러 시설로 개체하여 그 비율이 41%에 머물고 있으며, 나머지 반 이상의 가옥에서는 재래식 장작 아궁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거의 모든 농가들의 아랫채 사랑방이 비어 있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까닭에 난방방식의 개체가 그리 시급하지 않았던 까닭이라 생각된다.

3. 마감재료의 변화

조사된 농가들의 마감재료상의 변화는 대개 벽체, 지붕, 창호 등에 나타나고 있다.

벽체 재료는 대개 기존 심벽 혹은 토벽구조로 축조된 공간이 규모의 확장 및 축소, 혹은 용도의 변경 등을 거쳐 새로운 기능성을 갖추거나 공간의 신축 혹은 전면적 개축 등 부가적인 건축행위가 있을 때 변화가 발생된다. 이 때 사용되는 벽체 재료는 거의 모두 시멘트 블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채의 경우 공간의 확장 사례가 가장 많은 부위의 벽체(측면 혹은 배면)와 안방과 건너방의 벽체에서 일부 개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안채는 기존의 심벽 구조체를 많은 부분 그대로 남긴 채 부분적으로 개조된 양상이 뚜렷한 반면, 아랫채의 경우에는 용도변경과 신축¹¹⁾과정을 거치면서 전면적으로 많은 면적의 벽체가 시멘트 블록구조로 대체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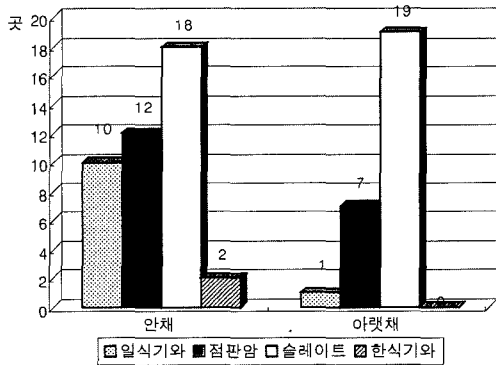


그림 10. 채별 지붕재료 현황



그림 11. 마루 전면 유리 미서기창 설치 예 (방축 2리 조희연씨 덕 안채)

지붕재료의 개체는 모든 가옥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조사된 가옥 대부분이 건립당시에는 초가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현재 남겨진 초가는 단 한 곳도 없고 기와나 슬레이트 등으로 바뀌어 버렸다. 개체의 추이는 안채와 아랫채 모두 슬레이트로 개체 한 곳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점판암(현지에서는 돌기와라 칭함)과 일식기와 한식기와 순으로 그 빈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안채와 아랫채의 지붕재료별 분포양상은 서로 달라 주목된다. 즉 안채는 슬레이트(18)와 점판암(12) 그리고 일식기와(10)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아랫채는 슬레이트(19)가 압도적으로 많고 일식기와나 한식기와를 올린 집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다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급 재료인 기와가 안채에서 주로 보이고 아랫채에 슬레이트가 많다는 것은 아랫채보다 실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채를 더욱 비중을 두어 개체한 결과로 사용빈도가 점 점 줄어들어 쇠락해 가는 아랫채에 가격이 저렴한 지붕재료를 선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창호의 개체 혹은 개조는 생활의 변화에 따라 가장 쉽고 간편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옥내 실생활이 이어져 오고 있는 안채 창호의 개체빈도가 더욱 많다.

포천군 농가에서 보여지는 창호의 변화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는 마루 전면에 유리 미서기 창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이다. 전체 42곳의 농가 중에서 13곳에서 이러한 개조를 목격할 수가 있어 그리 적지않은 많은 사례로 보인다. 특히 마루에 유리창호를 들인 이들 13곳 중 절반 이상인 8곳의 경우가 마루를 현대식 부엌 혹은 거실로 轉用하고 있어 창호의 개설이 주로 마루를 용도변경 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11) 아랫채의 공간변화는 용도변경과 신축이 대부분으로, 외양간에 벽체를 들이고 창고 혹은 고방으로 용도변경 되거나 새로운 공간이 신축되는 추세를 앞 절에서 밝힌바 있다.

이들 8 사례 중 5곳에서는 목재 마루 바닥을 시멘트 몰탈 구조로 바꾸는 대규모의 개조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수를 보이는 창호의 개체양상은 안방과 건너방 여닫이 세살문이다. 조사대상 농가의 11곳에서 이들 세살문이 兩開 미서기 창호로 개체된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 론

19세기 이후 근대화·산업화의 과정속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거의 건축적 변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포천군내 42개 농가를 대상으로 공간과 설비 그리고 재료상의 변화를 추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안채의 각 공간들은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거주성능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안방과 상방(웃방)을 통합하고 부엌과 건너방을 확장하는 사례들이 많았으며, 몇몇의 농가에서는 안대청이 입식부엌이나 현대식 거실로 용도가 변경되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현대식 주거양식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아랫채는 공간의 기능적 퇴화가 두드러진다. 대다수의 농가들에 있어 외양간은 이미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어 있으며, 새로운 공간이 필요해 질 경우 기존 공간을 확장하거나 통합하여 이용치 않고 새로운 공간을 신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둘째, 거의 모든 농가의 안채는 이미 현대식 주방설비와 보일러 등을 갖추어 취사 및 난방방식의 개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랫채의 난방방식은 재래식 장작 아궁이가 많아 안채보다는 난방방식의 개선율이

낮다.

셋째, 안채의 지붕은 초가에서 점판암, 슬레이트, 일식기와 등 다양하게 개체된 반면 아랫채는 슬레이트 지붕으로의 개체비율이 단연 우세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채에 양질의 지붕재료를 사용하여 개체시에 더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벽체의 개조는 안채가 부분적인 반면, 아랫채는 전면적이다. 이는 공간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채와 아랫채의 공간 변화 추세가 각기 달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다섯째, 창호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대청 전면의 유리 미서기 창호의 부설로 안대청을 현대식 거실 혹은 입식부엌으로 轉用하면서 초래된 변화로 분석되었다.

참 고 문 헌

1. 강영환(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 고도입(1991), 경기도 농가 안방 공간에서의 주생활 변화 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김영필·김후진·박강철(2001), 전남 지역 문화재 지정 전통 가옥의 평면 변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권 10호
4. 단국대·포천군(1998),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 유적, 단국대출판부
5. 이호열(1997), 경북지방 근대 한옥의 유형과 성격, 한국건축역사학회 학회지-건축역사연구, 제6권 3호
6. 최장순(2001), 영동지역 농촌주택의 유형과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9호
7. 포천군지편찬위원회(1997), 포천군지 상,하, (주)경기출판사
8. 한지만·이상해(2001),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 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9호
9. 허만형(2001), 부산지역 일본인 주거지내의 일식주택과 양풍건축의 유입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2권 제3호